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대승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여의주처럼 소중한나니

다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우니라.

여의주라 불리는 기적적인 보석은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온 나라의 고통을 없애 주기도 하지요. 이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여의주는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달래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당신은 신뢰하는 스승이 계시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대승의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법연은 단순히 이생에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을 통해 불법을 수행한 인연의 끈에 의해 생긴 결과입니다.

붓다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다르마의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법을 지닌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들을 수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덧없고 헛됨을 좇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당신의 행운에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하십시오. 한 순간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조계종 내년 예산 다룰 중앙종회 개회

11월 1일 제196차 정기회 시작... 15일간 회기

조계종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는 80명중 69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해 개최됐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임기를 보내고 새롭게 출범한 34대 총무원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시 한 몸이 돼 함께 해쳐 나가야 할 때이다. 집행부가 먼저 차별없는 중무행정 실천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제안했던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을 포함해 종단 구석 구석의 낡은 것들을 드러내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1994년 이후 고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운영구조와 조직체계, 중앙과 교구, 사찰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울러 오는 1월에 제34대 집행부의 발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회의장 항적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종회가 본연의 기능을 세울 수 있게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적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끝났다. 당선과 낙선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종회 구성원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번 종회가 종회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스제18교구 고불총림 방장 추대 △대중사 특별전형 등의 △호법부장 임명 등의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중정(중무행정) 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자승 스님 차별 없는 행정 강조

항적 스님 불교방송 등 현안 언급

인사안 처리 후 '중정' 감사 휴회

낙선 총재 질의 다수 혐오 예상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종회이지만 혐오가 예상된다. 지난 선거에서 대척점에 있던 3자연대(구 무량, 무차회, 백상도량)가 총무원 독주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3자 연대는 종회 개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원칙인 3권 분립의 취지도 견제와 균형에 있다"면서 "중앙종회의 본연의 역할은 종도들에게 유익한 법안을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에 개원에 앞서 참석의원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고있다.

만드는 것과 총무원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향후 3자연대는 종회모임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3자연대 소속 종회의원들이 내놓은 종책질의 등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현 집행부를 겨냥하고 있다.

장적 스님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예산이 3억 원대로 삭감된 이유와 향후 결사추진본부의 운영 계획 등을 질의했다.

특히 장적 스님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예산이 3억원 대로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조계종 기획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초가 미진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차기 사업에 집안다고 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성과가 미진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 중 예비비 명목으로 19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종책질의도 상정됐다. 일문 스님은 "예년의 경우 일반 회계비의 5%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비비를 12억 원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각 부서별 예산은 줄이면서 예비비를 늘려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또한 도정 스님은 장주 스님과 자승 스님의 밀약서에 대한 질의를 제출했으며, 오심 스님은 고운사 국교보조금 불사 중 공사업자 횡령에 대해 질의했으며 고운사의 지난 4년 간의 보조금 불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정 감사를 마친 후 11월 11일 속개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인선 완료

10월 29일 부실장 임명장 수여

총무부장·사서실장은 유임

10월 3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34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부실장 교역직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기획실장에 일감 스님, 재무부장에 보경 스님(나), 문화부장에 헤일 스님, 사회부장에 보화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원명 스님, 정책특별단장에 정범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나머지 국장단 인사들도 이뤄졌다. 감사국장에는 보은 스님이, 재무국장에는 명선 스님이, 문화국장에는 각필 스님이, 호법국장에는 설암 스님이,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모인 스님(나)이 임명됐다.

총무부장 중훈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총무국장 광전 스님, 기획국장 남진



총무부장 중훈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문화부장 헤일 스님, 사회부장 보화 스님, 호법부장 원명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정책특별단장 정범 스님, 감사국장 보은 스님, 재무국장 명선 스님, 문화국장 각필 스님, 호법국장 설암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모인 스님(나)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문화부가 아닌 재무부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는 점이 특이할만한 점이다. 또한 자승 스님 측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참여했던 스님들이 부실장 인선에 이름을 올릴 수 올린 점도 눈길을 끈다.

"비상경영체제 운영 난관 타개해 나갈 터"

위덕대 김정기 총장 취임식

진각종 총림 위덕대 제 6대 총장에 김정기 前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이 취임했다. 위덕대는 10월 30일 정진관에서 김정기 총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방이기에 때문에, 학생수가 적고 지역 사회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대학구성원 모두 하나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주익 기자



진각종립 위덕대는 10월 30일 6대 김정기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아(시기리아성체)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볼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국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5 전일정 4성급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8 전일정 매일 1인 2명 생수 증정
-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10 여행보험 포함

개인경비는(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1 보드가야(Bodhgaya):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2 사르나트(Sarnath):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3 스라바스티(Gravasti):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4 라즈기르(Rajgir):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취산(영취산)이 있는 곳.
- 5 바이살리(Vaishali):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원왕奉蜜) 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6 쿠시나가르(Kushnagar):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7 룸비니(Lumbini):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릉이 있는 곳.
- 8 상카시아(Sankasya):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